

협회 동정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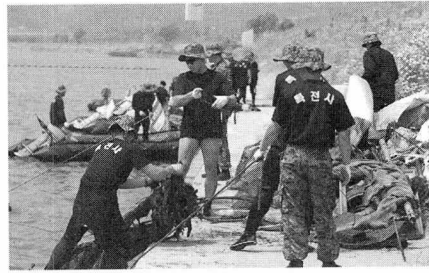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한 “환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5일(화)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었다.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고, 각국에 환경보전 행사를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여 매년 기념식과 각종 환경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정부는 올해 환경의 날 행사 주제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위기를 반영하여 ‘생명·환경-위기의 지구’로 정하여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우리나라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대표와 환경부장관이 함께 ‘종교계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 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환경보전에 공이 큰 각계인사 31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한강상수원 수증정화활동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육군 특전사와 합동으로 팔당댐하류구간(팔당대교-잠실수중보



23.5km)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증 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특전사 전문요원 250명, 모터보트 25척, 잠수장비 등을 동원하여 수중에 방치된 페타이어와 고철 등을 수거하고, 한강둔치로 집결된 수증쓰레기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팔당댐 하류-잠실수중보 구간은 암사 등 12개 취수장이 위치하여 서울·인천·경기 일부 등 수도권 시민에게 하루 448만톤(수도권 물 공급량의 56.7%를 차지)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한강 수증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총 205톤의 수증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수증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증정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보전 유공자, 환경부장관 표창 전수식



지난 6월 4일 환경보전협회 본회에서는「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평소 환경분야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활동한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표창 전수식이 있었다. 수상자로는 (주)다산컨설팅트 마 석 상무, (주)디에스피

협회 동정

유동호 대표, 롯데칠성음료(주) 이승용 팀장이 수상을 하였다.

부산지회, 환경오염사진전 및 재생비누 제작 배포



환경보전협회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정병호)에서는 제12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의 주제로 부산광역시청 지하철연결통로에 2007년6월11일~15일(5일)까지 부산환경공단과 함께 환경오염사진전 50점 및 재생비누 500개를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무료로 배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유치원 및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 2,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제작한 재생비누를 관람객에게 배부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자원의 소중함도 함께 일깨워주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다.

대구·경북지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희태)에서는 지난 6월 5일 시민, 학생, 환경단체, 기업인,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청정과 대구광역시 공동주최로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행사와 더불어 환경관련 우수공무원 및 환경단체, 기업체 및 환경기술인 등에 표창을 수여하였고, 이희태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환경이 기업과 국가간에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환경사진전을 기념식 행사와 함께 개최하여 대구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광주·전남지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산업시찰 실시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문덕형)는 지난 6월 5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희정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관련 유관기관, 환경산업체 및 민간환경단체, 환경관련공무원, 시민 등 약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지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회원사, 유관기관 환경업무담당자 35명을 인솔하여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시회를 참관하였다. 환경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었으며, 전시회 참관 후 환경관리 모범업체인 현대자동차(주)아산공장, 하이트맥주(주)전주공장을 견학하였다.

대전·충남지회, 6월 환경의 달, 다채로운 행사개최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용문)는

협회 동정



지난 6월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부대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2회 환경의 날에는 충청남도과 함께 당진군 문예의 전당에서 지역주민과 환경기술인, 학생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대전·충남지회는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에 관내 회원사 환경기술인 80여명을 단체 인솔하여 참관하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전자(주)를 견학하였으며, 6월 27일(수)에는 역시 충청남도 후원하에 공주문예회관에서 충남도내 실버환경감시단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환경감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개최하였다. 참가 실버환경감시단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동 사업은 매년 연례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방침이다.

경기도지회,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환경 테마 행사



환경보전협회경기도지회(지회장 우봉제)에서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다채로운 환경 테마행사를 광주시 청석공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억동 광주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신창기 경기일보 대표

와 환경단체 회원 및 기업체 임·직원, 주부, 학생 등 약 2,0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하였다. 또한, 제13회 경기 환경백일장 및 제12회 경기 환경그림대회는 경기남부지역(광주시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장)과 경기북부지역(고양시 일산호수공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날 초·중·고등학생 약 2,00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문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식과 전시회를 7월 7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였다.

충북지회, 국제환경기술전 참관 및 환경 모범업체 견학, 세차업소 환경 현장실무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 충북지회(지회장 이태호)에서는 지난 6월 12일 도내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담당자 및 관련공무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방지기기에 대한 신기술정보, 선진 환경기술 보급과 더불어 환경시설에 대한 견문을 높여 효율적 환경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을 참관하였으며, 환경모범업체【오비맥주(주)이천공장】를 견학하였다.

또한 보은·옥천·영동 3개군 관내 세차업소담당자 및 관련공무원등 40여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운전 및 약품희석요령, 행정실무 등 실무기술교육을 실시, 기술부족과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세차업소들의 환경오염사고 및 오염행위에 방에 도움을 주었다